

## 반세기 한국경제의 산 증인

- 최호진 박사 -

윤기중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호진은 1914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 과정을 거쳐 1938년 일본 규슈대학(九州大學) 경제학부에 입학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회로에도 동요함 없이 오로지 경제사 연구라는 학문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는 1941년 3년 간의 학부과정을 마치고 화폐금융연구실의 조수로 채용되어 한국경제사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1년간의 연구 결실로 1942년에 『근대조선경제사』를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연구 업적이 평가되어 1943년 총동원령에 따라 모든 청·장년이 전선으로 출정되었으나 최호진은 당시 제국대학에서 채용하는 특별연구생에 선발되어 전시 하에서도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최호진의 연구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한국 경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경제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학 일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중심은 어디까지나 '한국경제사'이며 그 연장으로 분야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경제학 일반은 해방 이후 경제학 교육을 위해서 저술된 것으로서 경제원론, 화폐론, 재정학, 화폐금융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학 화폐금융연구실의 조수생활이 인연이었던 것 같다. 한국경제사 외에 주력한 분야가 '한국경제론'이다. 한국경제론 분야 저서는 1959년에 『한국경제와 경제학』을, 1963년에

『한국경제의 제문제(1-5)』를, 1973년에 『최호진 교수 평론집』을, 1976년에 『한국경제론』 I 과 II, 1984년에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1993년에는 『부의 집중과 분산』을, 그리고 1995년에는 영문 논설집 『Essays on Korean Economy』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한국경제사 연구의 큰 줄기만을 논할 것이다

연희전문학교 교수 백남운은 1933년에 『조선사회경제사』를, 그리고 1937년에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을 처음 출판한 바 있다. 위의 두 권이 한국경제사에 관한 대작이기는 하나 조선왕조시대가 빠져 있어 통사라 할 수는 없었다. 백남운의 저서가 출판되기 이전이나 또 해방 이후까지 간헐적으로 한국경제사가 출판되기는 했지만 '계'와 '부분적인 농업사' 등 단편적인 것들일 뿐, 체계적인 통사는 백남운 이후 30년이 지나 최호진에 의해서 『한국경제사개론』이 처음 저술 출판되었다.

한국경제사 연구에서 백남운의 사관은 뚜렷했다. 즉,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법칙은 사적 변증법으로 민족 생활의 계급적 제 관계와 사회체계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시 그 법칙성을 추상화 하는 것이라고 그 방법을 명시하고, 역사 연구의 동기 두 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후꾸다(福田) 박사의 『조선경제사』에서 조선에는 봉건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한국 농촌의 몰락상이다.

마찬가지로 최호진도 1942년에 저술 공간한 『근대조선경제사』 서문에서 연구의 목적이 조선왕조 후기에 있어서의 지배계층의 '가렴주구'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에 있다고 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가렴주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상업 자본과 고리대 자본의 형성 과정을 분석, 그 형태와 방법에서 다시 지배계층의 수탈 실상을 인식하게 했다. 즉, 상업 자본의 형성은 객주가 소상인에 대하여 고리대금업자로서 대금업을 자행하며, 또 지방에서는 봉건영주 격인 양반이 경제 외적 요인으로 소상인을 종속시켜 상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수탈한다. 이러한 수탈로 소상인은 상업 이윤을 축적하지 못하고 무력한 소상인으로 연명하게 된다.

로마의 귀족은 귀족에게 대금은 하되 이자는 금하고 평민에 대해서는 이자 징수가 허용되었다. 유대인의 경우도 유대인 상호 간에 대금은 하되 이자는 금했고, 이방인에 대한 이자는 허용되었다. 조선왕조 후기에 고리대금의 경우는 국가기관, 지배 계층인 양반, 객주, 그리고 직업적인 고리대금업자들이 대금업을 하는데 대상은 주로 사치한 지주 계층, 소상인, 소농, 그리고 가내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차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한번 고리대에 채무 관계가 성립되면 전 가족의 생활 자료를 모두 잃게 된다. 당시 봉건지배층은 고리대금이 필요하며 편리한 위업을 구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고리대금업을 자행했다. 고율의 대금업의 경우 왕실이나 국가기관은 국가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객주는 상업 자본의 증식 수단으로, 그리고 양반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했다. 고리대금업에 의해서 축적된 자본은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피지배계층의 궁핍화만 가속시켰다. 즉, 형성된 자본이 생산을 위한 산업 자본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자양적(自釀的) 기능을 못했다.

이러한 실상이 바로 조선왕조 후기 가렴주구의 전말이었다.

1942년의 『근대조선경제사』 저술 이후 전시나 해방 이후 혼란기와 6·25동란기에도 경제사 연구에만 일관했다. 미비한 사료의 보완으로 『한국경제사통사』를 저술하는 한편 일반 경제사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즉, 1947년 『근대조선경제사』 제 1권을 출판한데 이어 1958년에 저술한 『근대한국경제사연구』에는 '농업생산력'이 추가되었으며, 또 한국 경제 발전의 6단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1962년에 처음으로 한국경제사 통사인 『한국경제사개론』이 저술 출판되었다. 일반 경제사의 경우 1946년 저술한 『일반경제사』에는 유물사관과 그의 문헌 목록이 수록되었으나 그 이후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6·25전부터 우리 학계에도 이데올로기의 격화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사 통사는 그 연구 목적이 후진성, 침체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조선왕조 후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자양적 요소를 찾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1946년 『일반경제사』, 1947년 『근대조선사연구, 제1권』과 『경제사대강』, 그리고 6·25 사변을 겪고 난 1958년에는 『증보 근대한국경제사연구』, 1962년 『한국경제사개론』, 1970년에는 『정정·증보 한국경제사』를, 그리고 1971년 한국경제사 영문판 『The Economic History of Korea』가 저술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사의 개척에서 통사의 완성까지는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헤아려진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경제 발전을 6개 단계로 구분한 점이다. 즉 ① 원시사회 ② 3국 병립 시대(노예경제) ③ 동양적 봉건사회의 성립기(통일신라) ④ 봉건 사회의 발전기(고려시대) ⑤ 봉건 사회의 완성(조선왕조시대) ⑥ 봉건 사회의 붕괴와 식민지화 과정으로 나누었다. 이 같은 6단계설은 최호진의 특이한 사관에서 근거했다.

민족마다 특수한 문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원론적 세계사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같은 과정

을 우리도 겪어왔다고 보고 ① 노예경제 ② 봉건사회 ③ 자본주의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 구분이었다. 즉, 백남운의 시대 구분에 의하면, 3국 병립 시대의 사회적 구성을 노예경제로 규정하는 것은 정복 국가의 발전 과정을 겪어 각 생산부문의 노동 편성이 피정복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왕조시대를 동양적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세아적 생산 관계는 중국, 이집트, 인도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의 생산 관계로 토지는 국유이고, 생산에서 수리와 관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관리 지배 하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또 농민을 토지에 고착시켜 지대(地代) 대신에 지조(地租)를 납부하게 하고 일부는 지배층인 관리를 위하여 부역 노동을 하고 일부는 생존을 위하여 노동을 한다. 이러한 농민은 농노(農奴)로 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양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동양적 봉건제'라 한다.

그러나 최호진은 위의 세계사적 범칙에 따라 나뉘어진 봉건제 사회를 한국 민족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하여 3단계로 나누었다. 즉,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의 강화로 기존의 왕권이 붕괴되면서 제도의 보완과 새 제도의 확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왕조시대로 나눈 것이 그 특징이다. 노예경제 시대인 3국 병립 시대 이전을 원시공동체 사회로 구분한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원시공동체 사회에 중국으로부터 금속문명이 유입되어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어 그 영향으로 두 가지의 변화를 맞게 된다. 즉, 금속문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 간의 생산력의 격차로 계급화가, 또 증가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생산 수단의 사유화와 상속제가 생기고,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노예화함에 따라 노예경제 시대를 맞게 된다. 이러한 3국 병립 시대인 노예경제 제도가 원시사회의 공동체 잔재로 인한 계급 모순으로 무너지면서 통일신라시대를 맞게 된다.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왕조 말까지를 동양적 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통일신라시대를 봉건제의 성립기, 고려시대를 발전기, 그리고 조선왕조시대를 완성기로 정의하고 있다. 통일신라는 3국 시대 공동체의 잔재를 청산하고 토지를 중앙집권적 국유제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국왕과 대소의 봉건 관리, 그리고 불교 사찰이 대지주가 되는 불완전한 토지 국유제를 유지하다가 문란의 극을 맞게 된다. 고려시대는 신라시대의 모순을 수정하는 전제개혁(田制改革) 즉, 문란한 제도를 수정하고 무질서한 농민 수탈을 바로 잡는 중앙집권제를 강화 발전시켰으나 고려 또한 지방의 봉건 지배층의 세력 팽창으로 토지의 중앙집권화가 문란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어 무너지게 된다. 조선왕조시대는 전제개혁에 앞서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수탈된 토지의 국유화와 토지의 등급화, 그리고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토지관리의 중앙집권화로 동양적 봉건제가 완성된 시기이다.

통일신라의 붕괴는 봉건 지배층의 농민 수탈, 봉건 관리의 토지수조권(土地收租權)의 세습화, 나아가서 봉건 지배 세력의 신장과 이에 따른 왕실의 무력화로 고려시대를 맞게 된다. 고려시대는 봉건제의 발전기로서 초기에는 전제를 개혁하여 문란한 토지제도를 수정하고 무질서한 농민 수탈을 바로잡기는 했지만 건국 이후 공신들의 수 증가에 따른 사전(賜田)의 난발과 수조권의 세습, 사전 확대에 의한 공전(公田)의 감소는 국가 재정을 축소를 초래하여 갖가지 명목으로 피지배층을 수탈하게 된다. 더욱이 인종 이후 명종의 폐위와 신종 직위에 공헌한 최충현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기간에 개경의 부패상은 극에 달하여 지배층 상호 간의 상쟁과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면서 국권이 약화되고 민란기를 맞게 된다. 그 결과 망이·망소이(亡伊·亡所伊)의 난, 서북지방의 조위룡(趙位龍)의 난, 인종 이후 명종의 폐위와 신종 직위에 공헌한 최충현의 세도정치가 확립되면서 개경의 부패상은 극에 달하고, 설상가상으로 지배층의 상쟁으로 국권이 약화되어 민란과 외침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선왕

조사대를 맞게 된다.


조선왕조시대에는 토지조사와 토지대장의 구비 등으로 봉건제는 완성되었고, 후기에 들어서면서 수공업의 발달과 객주에 의한 상업자본의 발달로 자본주의의 자양적 요소가 성장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전조, 공조, 그리고 부역 노동의 가중은 삼정을 문란시켜 외세 침입을 용이하게 하여 식민시대를 맞는다. 이와 같이 봉건 지배층의 가렴주구가 심화되면서 민심의 이탈로 왕권이 교체되면 제도의 보완으로 봉건제는 발전되지만 말기에는 가렴주구의 반복으로 새 왕조를 맞는 전말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최호진은 제자 이석륜(화폐금융론과 화폐사), 김병태(농업경제와 농업사), 김병하(경제사와 기업사), 최태호(경제사와 개항기의 대외무역) 등과 함께 한국경제사의 분야사 연구에도 착수한다. 제자들과 함께 그 동안 수집해 놓은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한편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여 체계화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완성된 것이 1969년에 출판된 『한국관세사』이고, 1971년 『한국화폐전사』, 1972년 『한국무역사』, 1980년 『농지개혁전사』를 저술 출판했다.

『한국관세사』는 신라시대 이후의 대외정책과 대외거래 상태와 조선시대의 개항 이전과 이후의 대외거래에 따른 관세제도, 그리고 해방 이후 혼란기의 관세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한국화폐전사』는 화폐의 기원을 비롯하여 고려와 조선왕조시대의 전기와 후기, 개항기, 그리고 식민지 하에서의 교환 경제의 발전에 따른 화폐의 발달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무역사』는 신라 말부터 개항 이전의 대외무역과 개항 이후 근대 무역의 성립 발전과정, 해방 이후의 대외무역 성장과 발전을 기술한 것이며, 『농지개혁전사』는 농지정책사를 정리 체계화한 것으로서 특히 해방 이후 농촌의 황폐상과 지주 자본가를

대표하는 한민당의 정책 등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마르크스(K. Marx)는 헤겔(G. W. P. Hegel)의 관념 변증법과 포이에르바흐(L. Feuerbach)의 기계론적 유물론을 연구하고, 이것의 비판적 토대 위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정립했으며, 케인즈(J. M. Keynes)는 확률론과 화폐론의 연구 토대 위에서 '유효수요이론'을 확립했다. 또 슈페타(J. Schumpeter)는 역사 분석을 통해서 경기 순환과 자본주의 사회의 장래를 분석하고 있다.

백남운도 한국경제사 연구를 통해서 해방 정국을 이해하려 했다. 최호진 또한 한국경제사 연구를 오늘의 한국 경제 실상의 인식 수단으로 삼고 있다. 최호진이 맨 처음 한국경제사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 답은 이미 논의되었지만 나머지 일부는 1993년의 저서 『富의 집중과 분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다. 폐쇄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본이 자본주의의 자양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인 어제와 오늘도 지배계층의 부의 집중이 산업자본화가 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사회의 근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새삼 우리를 반성하게 한다. 최호진은 아직도 한국연구원 이사장실에서 오늘의 고민을 풀어보려는 듯, 모아 놓은 자료를 정리하고 계신다. 

#### 윤기중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전임강사와 조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조교수,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연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통계학』, 『수리통계학』, 『한국경제의 불평등분석』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소득 불평등 분석" 다수와 "불평등의 재평가"가 있다.